

of territory.

In 1914, following a re-agreement between the Australian and the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s, the whole South Kyung Sang province was assigned to the Australians and it is there that most Australian missionaries worked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is agreement was basically maintained until the missions withdrew in 1941, the advent of the Second World War.

As the records show, the comity agreement of territorial division was initiated by the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 and from then on its emphasis upon the comity was so strong that some elements of friction tended to distract the Korean Church. While the comity agreement eliminated unnecessary competition by dividing Korea into non-competitive geographical spheres of influence, and consequently it had undoubtedly contributed to the rapid evangelization of all Korea, it also, in later years, produced theological or liturgical differentiae and acted as a practical bridge in transporting the theological viewpoint to the field directed by the mission forces in the assigned area.

The comity agreement was a means of efficiently utilizing the limited funds and personnel of the individual denominations, but it failed to achieve a unity and harmony in later years. In this matter, Dr. Sung C. Chun's judgement was very sound when he said,

In later years the result of the geographical divisions effected by the Comity arrangement proved an unexpected source of provincialism. All the residents of a particular area—both missionary and Korean—found themselves bound by theological views as geographical limits.⁶³

63 Sung C. Chun, *Schism and Unity in the Protestant Churches of Korea*, (Seoul :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9), p. 125.

적그리스도의 정체 (살후 2장을 중심으로)

한정건*

1. 서론

과연 적그리스도란 실체인가? 그는 상존하는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일어날 실제 인물인지? 만약 적그리스도가 실제 인물로서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면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건전한 보수교회에서 부터가 아니라 불건전한 종말론자들의 입을 통하여 듣고 있다. 보수정통교회들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성경적 근거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그에 대하여 확실하게 규명해 줌으로써 마지막 때를 바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들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일 수 있는 인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그가 하는 역할은 엄청나게 크다.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주님이 재림해 오시기 전에 교회가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에 대해 기피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제시된 그의 정체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종말의 때에 과연 적그리스도가 존재할 것인지를 가리며, 또 그가 존재한다면 그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세밀히 밝히는 것이다.

2. 적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2.1. “적그리스도”의 정의

“적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는 요한서신들에서 나타난다. 먼저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 신학과, 조교수, 신학박사

이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다. “적”에 해당하는 헬라어 “*αντί*”는 “반대”(against) 혹은 “대신에”(in the place of, instead of)라는 의미로서,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혹은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신 앉은 자”라는 의미를 지닌다(Hubbard, 1960 : 46).

Homer의 *Iliad*에서 *αντίθεος*(anti-god)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같이”(like god)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Kauder, 1979 : 124). 이것은 “거짓”이라는 의미로서, 신약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pseudo와 동의어가 되겠다.

이상에서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를 요약해 보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또는 거짓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요한서신은 적그리스도란 어떤 인물인지를 보충 설명해 준다. 요한일서 2 : 22에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한다.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거짓말 하는 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가 메시야임을 부인함을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부정한다(22절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역시 아버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23절).

요한이서 7절에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로 일컫는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은 기독교의 핵심요소이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됨을 말한다. 그가 육체로 “임하였다”(*ἐρχομένον*)는 말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였음을 전제한다. 그리고 그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의 자격이 있음도 인정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바울서신에서 유일하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곳으로 생각된다. 바울은 그를 “불법의 사람”(man of lawlessness 혹은 man of sin)으로 부른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더 설명한다: 첫째로 “저는 대적하는 자”이다; 둘째로 저는 스스로 높여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한다.

이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요약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장한다.

2.2. 적그리스도의 현재성

요한서신은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고 말한다(요일 2 : 18). 요한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현재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요한은 때로는 적그리스도를 단수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수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요한서신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언제던지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을 가리킨다.

요한서신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에 어떤 특정한 자를 가리키는 것보다 차라리 적그리스도적인 영에 대하여 촛점을 모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Hubbard, 1960 : 47).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否認)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차단한다(Westcott, 1979 : 75).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파괴하는 고차원적인 악령의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비진리 운동이며, 진리를 대항하는 도전이다.

요일 4 : 1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다.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고 말한다.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3절).

역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며, 기독교를 와해(瓦解) 시킬려는 악령의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왔다.¹⁾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 : 1-12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현재성과 미래성 두가지를 다 잘 설명해 주고 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막는 것을 옮길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8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미래성으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적그리스도와 (현재성을 이야기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어떤 “불법의 세력(악령)”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여럿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an Anti-Christ이며 the Anti-Christ와 구분된다.

2.3. 적그리스도의 미래성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미래의 어떤 특정적인 인물이 아닌 현재적이고 복수인 적그리스도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간주되는 여러 구절들(살후 2 : 1이하; 단 7장; 계 13장 등)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보다, 교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Milligan, 1980 : 170).

예를 들어, Berkouwer는 요한서신으로부터 적그리스도 논쟁을 시작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현재성과 복수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 개념—즉, 현재 나타나 있는 적그리스도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을 부정한다. 그는 모든 강조점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짓 영에 둔다. 따라서 그는 마지막 때에 특정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부인한다. 마지막 때에도 당연히 예수를 부인하는 큰 이단이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이 적그리스도이지 어떤 개인적인 특정 인물을 두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Berkouwer, 1972 : 265-66; Wilkinson, 1982 : 126f 참조).

Berkouwer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이단에 대하여 경계해야 하며, 미래에 큰 이단이 나타날 것도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서신들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인 묘사에 다 적용시켜, 성경 구절들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요한서신의 것과 구분짓지 않고 하나로 볼 수가 없다. 데살로니가후서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미래의 그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음이 명백히 들어난다.

1) 요한이 서신들을 기록할 즈음에 이미 영지주의(Gnostic) 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을 것으로 간주되며, 요한은 이들을 대항하여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Westcott, 1979 : 75).

데살로니가후서 2:1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이 바로 주님이 강림할 때이라는 예언들에 관하여 바울은 교인들이 미혹당하지 말기를 경고한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한다. 이 말은 현재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그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야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불법의 사람”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적인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데살로니가후서 2:7-8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라고 말한다. 즉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은 시작하였지만 그가 본격적인 활동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²⁾ 적그리스도의 영은 더이상 비밀로 감추어져 있지 않고 그의 활동은 시작했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3. 데살로니가후서 2:1-12

3.1. 미혹에 대한 경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문제를 본문에서 취급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혹 영으로나 말로써 예언하거나, 또는 편지를 써서 주의 강림(*παρουσία*) 하실³⁾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들의 가르침에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 하지 말고, 또한 미혹을 받지 말도록 경고한다.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의 강림산 강화에서도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παρουσία*)”과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구했을 때에 (3절), 주님은 징조를 주시기 앞서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신다(4-6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다. 또 난리의 소문이 퍼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신다. 이 미혹에 대한 경고를 하신 후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실한 징조를 주신다 (7-18절). 주님이 주신 징조에는 전쟁, 기근, 지진, (누가복음 본문에는 온역이 포함), 그리고 성도들의 대환란 등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어진 징조들 중의 핵심은 15절의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다.⁴⁾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대환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징조이며, 그 이전에 어떤 난리와 소문이 있더라도 미혹을 당하지 말하는 말씀이다.

2) 이 부분은 자세한 주석은 살후 2:1-12을 다루면서 뒤에 해석하도록 하겠다.

3) *Παρουσία*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것은 한정건, 1989: 96-98을 보라. 혹자는 *παρουσία*는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한 영적인 주님의 임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를 쓰고 있는 때는 이미 오순절이 지난 때이며, 본문은 미래의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예상하고 있지, 이미 시작된 영적인 강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4) 마 24:15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정건, 1989: 106-110을 참조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3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밝힌다. 요한서신들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바로 지금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는 현재의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이 아닌 미래의 어떤 특정한 인물의 출현을 예고하며,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주님의 강림할 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3.2. “배도하는 일”

*Αποστολα*란 단어 자체는 헬라 고전어에서는 “반란”(rebellion)이란 뜻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지녔다 (Wilkinson, 1982: 130). 따라서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란”을 염두에 둔 것 같다 (Morris, 1975 218f).

“반란”이라고 할 때에 전의 동맹관계를 배반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배반이 유대인으로부터인지 아니면 기독인으로부터의 배반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날에 있을 배반을 뜻한다. 유대인들의 배반은 이미 현재(바울 당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바울은 오히려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도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롬 11:12, 25) (한정건, 1987: 236-311 참조). 따라서 이 본문에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으로부터의 이탈을 경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Wilkinson, 1982: 131).

마태복음 24:10에 마지막 때의 정조중 성도들의 환란을 말하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쇠어질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배반하는 양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된다. 누가복음 18:8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재림 때에 믿는 자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어 믿는 자를 흔하게 볼 수 없을 것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영적인 세력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사단의 사주를 받는 사람의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3. “불법의 사람” 과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의 사람을 “불법의 사람”(‘ο αὐθωπός της ανομίας)과 “멸망의 아들”(‘ο ὃς της απωλείας)로 설명한다. *Ανομία*를 영어번역성경들은 흔히 “lawlessness”(율법이 없는)로 번역하나, 그러나 단순하게 율법이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율법에 반하는”(antinomia)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Milligan, 1980: 99). 다른 말로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자행할 자이다. 교회에서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antinomians)은 율법주의자들(legalists)보다 더 위험하다(Bruce, 1982: 168).

“불법의 사람”이 또한 “멸망의 아들”(‘ο ὃς της απωλείας)로 불리워지는 것은 그의 궁극

적인 운명은 “멸망”으로 규정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희년서에 “멸망의 아들들”은 흥수로 멸절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진다(10:3). 데살로니가후서 2:8은 미래에 나타날 이 “불법한 자”는 주님의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폐하실 것으로 말한다.

그에게 사용된 *ἀποκαλυφθη*(“나타나다”)라는 용어는 1:7에 주님이 강림하는 것을 묘사할 때에 사용된 단어이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는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따라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바울은 예수님의 임재와 대조되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의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인물이다(Morris, 1975 : 221). 그가 나타나기 전에(*πρωτον*, first)는 주님의 강림(*παρουσια*)이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인물로서 그가 나타나 “배도하는 일”을 주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당할 것이다.

바울은 그의 서신 어느 곳에서도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사용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불법의 사람”을 주님의 재림에 임박하여 일어날 적그리스도로 보아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과 사전류들이 그를 적그리스도로 단정한다.

3.4. 적그리스도의 역할

3.4.1. 자신을 신으로 높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는 하나님이나 승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살후 2:4)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αντικειμενος*)로서 하나님을 반대하며 그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펍박하는 것은 거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구절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다니엘 7: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하나님)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꾀롭게 할 것이며”; 계시록 13:6, “침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또한 그는 자신을 높여서 (*ὑπερεργομενος*) 어떤 신으로 불리는 것보다(over every so-called god), 그리고 경배받는 어떤 것보다 (subject of worship) 더 높아진다. 즉 자신이 신 중의 신으로 올라선다. 그는 오히려 살아계시는 하나님 보다는 자신을 더 높여서 신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경배받기를 원한다. 다니엘 11:36, 37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묘사되고 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의 성전”(*τὸν ναὸν τοῦ θεοῦ*)은 신약성경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칭하기도 한다(고전 3:16; 고후 6:16; 앱 2:21 등). “성전”이 예수님이십자가 이후에 사용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교회이며, 기독교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교회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계시록 13:14-15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보이는 현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은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우상을 가장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Bruce, 1982 : 168). Milligan은 “앉아”的 말인 *καθίσαι*는 지역적인 용어(a local term)임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해석을 반대한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영적인 면으로 취우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본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울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⁵⁾ 그들에 의하면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이다(단 9:27에 근거). 이때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년 반 후에 (이례의 절반에) 적그리스도는 태도를 변하여 언약을 파기하고 대환란을 줄 것이라고 한다(Walvoord, 1962 : 97; 참조, Vanderwaal, 1978 : 29).

우리는 일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지만,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는 새로운 성전인 자기 자신의 몸, 즉 교회가 대신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요 2:19-21). 참 어린양으로써 회생되신 주님이 죽으신 이후, 신약에서는 더 이상 구약적인 제사제도는 필요없으며, 성전은 무너져야 하였다. 따라서 성전이 다시 복귀될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주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은 지성소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배의 대상자가 되셨다(시 80:1; 99:1). 데살로니가후서 본문은 하나님 대신 적그리스도가 가장 거룩한 곳에 앉아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묘사한다.

이사야 14:13, 14은 바벨론 왕의 높아짐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아지는 것을 쓰고 있다. 왕이 신으로 높아져서 황제승배사상을 일으킨 경우는 로마의 황제들에게도 있었다. 특히 가이우스 칼리구라(Gaius Caligula)는 자신의 신으로 높이고, 주후 40년에 자신의 우상을 예루살렘에 까지 세우는 일이 있었다(Philo, Leg. 203-346; Josephus, Antiq. 18. 261-301; Bruce, 1982 : 168 참조).

본문의 맷세자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자기의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Bruce, 1982 : 169). 그 정확한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지역 예배당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예배처소가 될 것인지는 단언하

5) 가장 대표적인 세대주의자인, Hal Lindsey의 *The Late Great Planet Earth*를 들 수 있겠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Vanderwaal, 1978을 참조할 것.

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우상이 하나님 예배에 대체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3.4.2 거짓 능력을 행함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9-10상반절).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온갖 거짓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실하다.

이러한 것을 행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가장할 것이다. 헬라어는 그의 나타남을 “παρουσία”로 표현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림에 사용된 단어이다. 원래 이 단어는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행차할 때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한정건, 1989 : 97). 적그리스도 마치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거짓되게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와같은 이적을 행함은 계 13:11이하에도 잘 설명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짐승(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면서 큰 이적을 행한다.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는 기적까지도 일으킨다(13:15).

3.5.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7절).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경배받은 적그리스도적인 일은 이미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신약에서의 “비밀”(*μωστηριον*)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로마서 11:25에는 바울이 “비밀”(*μωστηριον*)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 구원의 계획이 가리워져서 비밀로 보였지만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내신다(한정건, 1987 : 289f).

본문의 “비밀”(*μωστηριον*)도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의도(계획)는 이미 들어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놓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종교를 자기의 종교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저로 하여금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로 사용된 헬라어 ‘ο κατεχων’은 남성인 한 인격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6절의 *το κατεχον*과 구분된다(Bruce, 1982 : 170). 이 인격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격체로 생각할 수가 없다. 혹자는 이 “막는 자”를 성령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것이 성령인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혹시 성

령이라는 생각을 전혀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성령을 포함한)이다.

본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구절은 “옮길 때까지”라는 말이다. 장두만 교수는 이것을 성령님이 옮겨간다는 것으로 말하면서, 따라서 성령님이 철수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옮겨감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구절을 근거로하여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교회는 들리워가고(휴거됨),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대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장두만, 1991a : 50 ; 1991b : 63-63).⁶⁾

그러나 본문은 성령님 자신이 옮겨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혹은 성령님)이 현재 하고 있는 “막는” 일을 거둔다는 말로 해석해야 한다. 헬라어 문장은 이 부분이 하나의 구(句)를 이루고 있다. 이 구 ‘εως εκ μεσου γενηται’를 “그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거두는 때 까지”(until out of midst it comes)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에서 *εκ μεσου*(“중으로부터 옮김”)의 대상은 동사인 *γενηται*이다. 이 동사의 주격은 ‘ο κατεχων(막는 자)’가 분명하나(Bruce, 1982 : 171), 그러나 이 주격은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옮기는 것의 초점은 주격(“막는 자”)이 아니라 동사 *γενηται*(“그가 하는 것”)이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6절에 분명히 말해진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니니”. 따라서 7절의 *γενηται*(그가 하는 것)은 “막는 것”을 의미하며, “옮긴다”는 것은 “막는 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막는 것”을 거두어 들인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근거하여 신약시대에 활동하는 성령님이 철수하고, 따라서 아직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 교회가 들이워 올라간다는 엄청난 교리를 형성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풀이하면,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현재는 억제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그(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해진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자신이 막고 있는 것을 거두어 들일 것이며,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8절).

3.6. 적그리스도의 최후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8절)

주 예수의 “강림”(*παρουσία*)은 그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입술의 능력은 계시록에 자주 묘사되고 있다: 계 1:15, 16,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계 19: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사11:4b 참조).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활동하게 허락하신은 저의 거짓 꾼임에 빠진

6) 장두만과 필자는 공중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는지(전자의 주장) 아니면 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 때에 있는지에(후자의 주장) 관하여『현대종교』1991, 4월호, 5월호, 6월호, 8월호, 10월호 등에서 토론을 벌렸다. 그 토론에서 본문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람들을 저와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이다(살후 2:11-12절). 따라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목적은 적그리스도만을 멸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저를 추종하는 이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 을 그와 함께 멸하기 위함이다.

계시록 13:8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이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과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 완전히 나누일 것이다.

계시록 14:14이하는 두가지의 추수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다 익은 곡식이며, 다른 하나는 익은 포도송이이다. 곡식(성도들)은 충실히 익은 일곡의 상태로 추수되어 하늘 창고에 들일 것이며, 포도송이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힐 것이다.

3.7. 결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본문은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마지막 주님의 강림이 임박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법한 자의 출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불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불리워진다. 이 불법적인 일은 이미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막고 있어서 그 정한 때가 이르러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자신을 가장하여 거짓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서 사람들을 미혹케 할 것이다.

그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멸망할 것이다.

4. 그 외의 적그리스도 구절들

4.1.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은 2장과 병행되게 기록되고 있다. 2장과 7장은 네 왕국들의 출현을 말하고 있다. 2장은 한 신상(사람의 동상)이 네 부분들로 나누이는 것으로 왕국들을 표현하며, 7장에는 네 짐승로써 묘사한다. 첫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왕국을 의미하며, 둘째 짐승 곰은 페르사(혹은 메데-페르샤)왕국, 세째 짐승 표범은 헬라왕국, 네째는 “짐승”으로 표현되는 로마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의 촛점은 네째 짐승이며, 그 중에서도 “작은 뿔”로 모아진다. 먼저 그 짐승이 철 이로 닥치는 대로 먹고 있으며, 이것은 네째 왕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짐승에게 열 뿔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기원전,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열(10)왕들”로 본문이 해석을 주고 있다(7:24). 따라서 네째 왕국이 처음부터 열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열뿔 사이에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더니, 먼저 있던 뿔중에 셋을 뿌리까지 뽑아 버린다(8절).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한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24절). 이 작은 뿔을 보수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며 (간하배, 1970:129), 필자도 거기에 동의한다.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첫째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키며 적어도 나라들의 1/3정도(세뿔) 뿌리까지 정복한다.

둘째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대환란을 준다: 21절, “이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범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불인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셋째로, 그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참람된 말로 하늘을 향하여 대적할 때에 그는 심판을 당하여 (네째 짐승 전체가 심판을 당함) 불는 불에 던져진다(7:11;26).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7:22, 27).

4.2. 다니엘 11:36-12:13

다니엘 10-12장은 하나의 환상으로 주어졌다. 11:2절이하는 페르샤에서부터 헬라나라에 이르는 역사가 예언적으로 전술된다. 이 역사적 전술에서 안티옥커스 4세의 행적이 클라이막스를 이룬다(11:21-35). 그가 두번째 이집트를 침입하고 귀환하는 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소를 더럽힌다. 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물건(주피터 신상)을 세운다(11:31).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교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헬라신을 섬기도록 칙령을 발표한다(이러한 사실들은 마카비상서와 하서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헬라의 앞잡이들을 높여주고(30절), 그들을 앞세워 유대백성을 펍박한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일부는 사막으로 도망가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독립투쟁을 한다(35절). 이들이 마카비와 그의 추종자들이다.

이 안티옥커스 4세는 다니엘 8:9-14에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다니엘 8장은 7장과 매우 비슷하게 엮여져 있다. 7장과 마찬가지로 8장에도 작은 뿔이 등장하여 7장의 작은 뿔과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러나 8장의 작은 뿔은 헬라왕국에서 일어날 한 왕으로서 안티옥커스 4세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상에서 볼 때에 8장은 역사적으로 있을 안티옥커스 4세를 먼저 등장시켜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8장의 안티옥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적그리스도 자신이 아닌)으로 보아야 한다.

다니엘 11:36이하는 “이 왕이”라고 시작한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본다면 그는 35절까지 묘사된 안티옥커스 4세인 것 같다. 그러나 그이하의 내용으로 볼 때는 안티옥커스 4세가 아니다. 따라서 11:36-12:13절까지의 구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보아야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정건, 1990:166f를 보라).

다니엘 11:30-35에 묘사된 안티옥커스 4세의 11-36절이하의 적그리스도의 구절들과 거의 같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11장의 안티옥커스도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사용되었다.

11:36이하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보면 첫째로, 그는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 신이되며 (36절), 또한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 (38절; 이 세력의 신은 계 13:4과 연관시켜 볼 때에 사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상의 신”이나 이미 알려진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 (37-38절; 안티옥커스는 반대로 자기의 선조들의 신들을 섬겼다).

둘째로, 그는 전쟁을 하여 땅끌까지 점령할 것이다. 특히 유대땅을 거쳐 이집트, 리비아, 구스(이디오피아)까지 점령한다 (40-43절, 리비아와 구스는 다니엘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끝이다).

세째로, 그는 성도들에게 대환란을 준다 (12:1-13). 이러한 환란은 이스라엘의 개국이래로 없었던 것이다 (12:1):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7절하).

네번째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교를 말살시킬려고 한다. 다니엘 12:11은 다니엘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수한 구절이 다시 반복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며, 대신 우상을 세워 거기에 절하도록 할 것이다.

4.3. 다니엘 9:27

다니엘 9:27하반절에는 다니엘서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절구가 다시 등장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흔히 이 구절을 메시야의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E. J. Young, 간하배, 박윤선 등). 그러나 이 구절은 다니엘서 다른 세곳에서 적그리스도의 표상인 안티옥커스 4세에게 두번 사용되었고 (8:13; 11:31), 또 다른 곳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다 (12:11). 따라서 9:27의 것만 이와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토론은 한정전, 1990:149-174를 참조할 것). 따라서 이 구절도 적그리스도로 보아야 한다.

이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그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으로써 화해정책을 펼 것이다.

둘째로 아래(7년으로 계산될 수 있음)의 절반에 가서 그는 돌연히 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세워 경배케 할 것이다.

4.4.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은 다른 어느 구절들 보다 가장 자세하고도 확실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13:1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소개된다. 이 짐승은 용(사단, 12:9)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왕권)와 큰 권세를 받는다 (2절).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과 그의 성격을 보면: 첫째로, 세상을 정복한다. 용이 짐승에게 권

세를 좀으로 짐승이 나아갈 때에 어느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울 자가 없다(4절). 둘째,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가 권세를 받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7절).

셋째, 그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졌다. 사단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가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사단에게 경배한다 (4절).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는 이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8절). 거짓 선지자(양의 모양을 한 짐스으로 묘사됨)가 나타나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 (12-15절).

넷째,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펴박할 것이다. 성도들의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참람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5절),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 (7절). 성도들은 사로잡힐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10절). 만약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며 (15절), 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6-17절).

다섯째, 적그리스도는 경제를 통제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에게만 이마나 혹은 오른손에 표를 주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경제를 이용하는 목적은 그의 종교적인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4.5. 결론

위의 본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성도들을 대적하여 큰 환란을 주고 있다. 그에 대해 설명이 덧붙여지는 것은, 그가 전쟁을 일으켜 세계를 정복할 것을, 온 세상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세계의 경제를 통제한다. 그의 최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심판을 받게된다.

그외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난다. 마태복음 24:15이하; 계시록 6:8c-11; 16:12-21; 19:19-21 등 많은 구절들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구절들도 앞에서 예로 든 본문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5. 맺는 말

적그리스도는 요한서신들에서 그 이름이 나타난다. 그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임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 예수가 육체로 임하였음을 부인) 기독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서신들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그에 대하여 복수로 말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적그리스도(an Anti-Christ)의 현재적이며 일반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이 일반적인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현재도 여러 경우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살로니카후서 2장; 다니엘 7장; 11:35-12:13; 9:27; 계시록 13장 등에서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인물이며, 그는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 멸망될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아직 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의 때가 아니라고 증언한다. 그의 출현을 현재는 막는 자가 있으며, 그 막는 것을 거두어 들일 때에 그가 나타나서 활동을 할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강림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미래적이며 특수적인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미래적이고 특수적인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보면: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종교에 정면 대립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력을 향하여 강한 도전을 한다. 그는 우상을 세워 자신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땅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땅에는 다수의 적그리스도의 종교와 소수의 기독교만 남아 정면 대결할 것이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팍박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가 우상이 되는 것과 교회의 팍박이다. 그때에 성도들의 대환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성도들인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연단받는다.

세째,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일으킨다. 다니엘 7장은 열뿔 중에서 세뿔을 뿌리쳐 뽑아버리며, 계시록 13:4에는 그가 나갈 때에 싸울 사람이 없다. 종말론의 많은 기사들에서 전쟁이 묘사되어 있다.

네째,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 계시록 13장에는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 그가 모든 나라들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

다섯째, 적그리스도는 세계경제를 통제한다. 계시록 13장에는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만 표를 주어(666과 관련됨) 이것이 아니고는 매매를 못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볼 때에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세밀하고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며, 마지막 종말에 그가 하는 역할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재림에서 반드시 취급되어야 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무관심 한 것은 바른 종말론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 보수 교단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 아님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의 사건들을 성급하게 성경에 끼워맞출려고 하는 일도 문제가 된다. 역대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보면 중세 이전의 초대교회(the Ante-Nicene church)는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Milligan, 1980 : 166f). 중세에서는 때로는 이스람교의 모하메드를 적그리스도로 간주하였고 (특히 동부교회), 일부에서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일고 있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대체로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간주되어 왔다(idem : 167-169). 최근에 소위 일컬어지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유럽공동체가 적그리스도라고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너무 쉽게 그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확실하게 위에 진술된 그 모든 성격을 갖춘 인물이 나타나기 전에는 가볍게 어떤 사

람을 확정시켜 버리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종말의 징조들이 현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혹은 이루어 질 것인지)를 살피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또 한가지의 사항은 적그리스도는 거대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타날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힘은 너무가 커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다스리며 경배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을 향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설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으며, 그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은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기피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없다. 결국 그는 주님의 입김에 심판받을 존재이다.

참 고 서 적

- Bruce, F. F.
1982 I and II Thessalon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 Word Books.,
Hubbard, D. A.
1960 "Antichrist", 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ed. by E. F. Harrison, 46-48.
Milligan, G.
1980(rep) St Paul's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Minneapolis : Klock & Klock.
Morris, L.
1975(59)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T), Grand Rapids : Eerdmans.
Vanderwaal, C.
1978 Hal Lindsey and Biblical Prophecy, St. Catharines : Paideia.
Walvoord, J. F.
1962 Israel in Prophecy, Grand Rapids : Zondervan.
Westcott, B. F.
1979(66) The Epistles of St. John, Grand Rapids : Eerdmans.
Wilkinson, Th.
1982 "The Man of Lawlessness in 2 Thessalonians", in NT Student and His field, ed. by
J. H. Skillton, Vol. 5, Phillipsburg : Presb. & Reformed, pp. 124-149.
간하배,
1970 다니엘서의 메시야 예언, 개혁주의신행협회.
이상근,
1984(71) 신약주해 : 데살로니가전서-디도서, 총회교육부.
장두만,
1991a "대한민국 교회와의 관계", 현대종교, 91(4월호) : 42-54.
1991b "대한민국 전인가 후인가?", 현대종교, 91(6월호) : 57-71.
한경건,
1987 The Restoration of Israel in Covenant Perspective, a Thesis for Th. D. at
Potchefstroom University.
1989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재해석", 고신대학 논문집, 제17집 : 93-
115.
1990 "다니엘 9장의 '70 아래'에 대한 재해석", 고신대학 논문집, 제18집 : 149-174.
1991 현대 종말론의 성경적 조명, 기독교문서선교회.
핸드릭슨, 윌리엄,
1985 데살로니가전후서 (핸드릭슨 성경주석), 아카데미출판사.

듀이(John Dewey)의 “사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김 성 수*

1. 서 론

교육은 가정, 교회, 학교등 우리 사회의 여러 다양한 기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의 수단을 통하여 아동의 논리-분석적인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주된 과업으로 삼고 있는 기관은 학교라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일차적 과제는 아동으로 하여금 올바로 사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듀이만큼 사고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듀이의 학문은 논리에서 시작하여 논리로 끝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듀이의 사고문제는 그의 철학의 중심과제요, 교육학의 중심과제라고 짐작할 수 있다.

1910년 출판된 듀이의 사고하는 방법(*How We Think*) 이라고 하는 저서는 듀이 자신이 부인과 함께 운영했던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부속 실험학교(Laboratory School)를 통하여 성장한 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험학교에서 듀이와 그의 동료들은 이 책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실제로 검증을 하였다. 듀이가 사고하는 방법에서 개진하고 있는 핵심적 사상을 한 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현대교육의 통합적 원리(unifying principle)를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에서 찾아야 한다는 신념이다. 과학적 방법은 효율성(efficiency)과 단순성(simplicity), 그리고 목적의 명료화(clarity of purpose)에 핵심적 열쇠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의 본성(본질)과도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풍부한 상상력, 열렬한 호기심, 그리고 실험적 탐구에 대한 욕구에 의하여 특색지워지는 아동기의 본성적 태도는 바로 과학적 태도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 교수, 교육철학, 기독교교육 전공

1) 김재만, 듀이철학, 서울 : 배영사, 1980, p. 194.